2월 겨울 극장가 色다른 사극 열전

‘조선명탐정3’ · ‘흥부’ · ‘궁합’ 등

국내 기대작들 조선시대 배경 이야기

2월 겨울 극장은 사극 매력에 푹 빠질 전망이다.

색다른 사극 영화들이 일제히 2월에 개봉한다. 영화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부터 ‘흥부:글로 세상을 바꾼자’, 그리고 ‘궁합’까지 2월 개봉 국내 기대작들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일색이다.

가장 먼저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이하 조선명탐정3 · 김석윤 감독)이 2월 극장가 사극열전의 시작을 알린다. 지난 2011년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로 시작해 성공적인 시리즈로 안착, 그 세번째 이야기가 되는 ‘조선명탐정3’는 매번 설연휴를 겨냥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설연휴 한주 전인 오는 2월 8일 개봉한다.

전작들에 이어 김명민 오달수가 환상의 콤비로 다시 만나고, 새로운 흥일점 김지원이 가세해 관심을 끈다. 무엇보다 김지원에게 ‘조선명탐정3’가 스크린 데뷔작이어서 영화의 흥행 여부가 김지원의 활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그동안에도 그랬고, 대박은 아니라도 중박은 할 영화”라고 ‘조선명탐정3’의 흥행을 점치면서 김지원도 충분히 합격점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오는 14일 개봉을 확정한 ‘흥부:글로 세상을 바꾼자’(이하 흥부 · 조근현 감독)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고전소설 ‘흥부전’을 참신하게 재해석한 영화로 관객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모아진다. ‘흥부’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형 놀부를 찾기 위해 글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천재작가 흥부가 놀부를 알고 있다는 조혁을 찾아갔다가 남보다 못한 조혁-조항리 형제의 모습을 목격하고 영감을 받아 ‘흥부전’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 흥부전의 탄생 비화를 밝힌다는 참신한 설정으로 큰 재미를 준다. 또한, 조선 세도정치가 극에 달하며 날로 궁핍해지는 백성들의 모습이 현시대를 투영하는 듯해 진한 여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풍물과 사자춤 등 다양한 소리와 볼거리도 이 영화의 관전포인트. 타이틀롤 흥부로 정우가 나서고, 2018년 개봉하는 고(故) 김주혁의 첫번째 유작이라는 점에서도 팬들의 관심이 모이는 영화다.

2월 개봉을 예정한 또 다른 사극 영화는 이승기 심은경 주연으로 관심을 끄는 ‘궁합’(홍창표 감독)이다. ‘궁합’은 지난 2013년 추석 흥행작 ‘관상’으로 시작한 영화제작사 주피터필름의 역학 3부작의 그 두번째 이야기다. ‘관상’이 사람의 삼라만상이 얼굴에 들어있다는 관상을 소재로 계유정난이 휘몰아친 조선의 이야기로 관객들을 압도했다면 ‘궁합’은 조선 최고 역술가 서도윤(이승기 분)이 혼사를 앞둔 송화옹주(심은경 분)와 부마 후보들간의 궁합풀이로 조선의 팔자를 바꿀 최고의 합을 찾아가는 코미디물. 묵직했던 ‘관상’과 달리 ‘궁합’은 젊은 출연진들이 선사하는 톡톡 튀는 재미로 유쾌한 웃음을 기대하는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오락영화로 각광받을 예정이다.

코믹수사활극 ‘조선명탐정3’부터 해학과 풍자가 넘칠 ‘흥부’, 그리고 웃음기 가득한 역학 코미디 ‘궁합’까지 저마다 개성이 강한 사극들이 2월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로 골라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캐스팅을 보고 골라볼 수도 있고, 영화의 분위기를 보고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극은 호불호가 있기도 하지만, 사극영화들 중에서도 흥행작들이 많았다. 미술 등에 공을 들여 볼거리도 많고, 시대와 역사를 반영해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덕분이다. 이번 영화들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작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상이몽2’ 최수종 · 하희라 합류…공감대 넓힌 선택

배우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 합류했다. 결혼 25년 차 부부의 등장으로 ‘동상이몽2’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을 만족시켰다.

지난 29일 오후 방송된 ‘동상이몽2’에서는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첫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수종, 하희라는 대중이 기대했던 잉꼬부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결혼 25년 차임에도 아내를 ‘희라 씨’라 부르며 존댓말을 하는 ‘원조 사랑꾼’ 최수종과 그를 ‘오빠’라 부르는 하희라는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은 라오스로 은혼 기념 여행을 떠나며 스페셜 부부로 합류한 상황. 입맛부터 여행 취향까지 다른 두 사람은 본격적인 여행 전부터 ‘동상이몽’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이들의 등장에 프로그램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동상이몽2’는 1부 11.1%, 2부 11.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5.8%의 분당 최고 시청률을 나타냈다. 오랫동안 최고의 1분을 독식해온 추자현, 우효광 부부를 꺾고 첫 출연부터 최고의 1분에 올랐다.

‘동상이몽2’는 최근 신혼부부인 우효광, 추자현과 6년차 정대세, 명서현 부부부터 결혼을 앞둔 강경준, 장신영 커플로 프로그램을 꾸려나갔다. 각각 개성 가득한 세 커플의 이야기도 사랑받았지만 폭넓게 세대를 대변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을 낳았던 게 사실이었다. 방송 초반 이재명 성남시장 부부처럼 중년층과 공감대를 형성할 커플이 요구됐던 상황에서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합류는 더 많은 시청자들을 만족시키는 선택이었다.

이와 함께 소이현, 인교진 부부는 오는 2월 5일부터 새로운 부부로 등장한다. 지난 2014년 결혼, 벌써 5년 차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동상이몽2’에서 어떤 공감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작은신의아이들’ 역대급 스릴러 온다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이 역대급 추격 스릴러의 시작을 알렸다.

케이블채널 OCN 새 주말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극본 한우리 · 연출 강신효, 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KPJ) 측은 30일 강지환, 김옥빈, 심희섭, 이엘리아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작은 신의 아이들’은 팩트와 논리, 숫자만을 신봉하는 엘리트 형사 천재인과 신비로운 직감을 지닌 막내 형사 김단이 베일에 싸인 음모를 추적해 나가는 신들린 추적 스릴러. 세상에서 제일 안 닮은 두 남녀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며 거대 조직을 파헤치는 공조 수사를 그린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앞으로 드라마가 그려낼 캐릭터 키워드가 예고돼 시선을 자극하고 있다. 음산한 사건 현장을 배경으로 짙게 깔린 보랏빛 조명이 강렬함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돋우고 있는 가운데 4인방의 개성 있는 표정과 눈빛이 담기면서 유례없던 신들린 추격 스릴러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강지환은 “죄는 증거로, 수사는 과학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과학수사의 화신이자 IQ 167, 4대 강력범죄 검거율 1위 형사인 천재인의 면모를 나타냈다.

김옥빈은 “나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목격자다”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로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피해자의 죽음과 당시 상황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김단의 남다른 능력을 표현하려 과감한 각도로 클로즈업 촬영된 심상치 않은 포스를 선보였다. 아련한 눈빛과 나아가 김단의 손목에 채워진 방울팔찌의 존재가 포착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심희섭은 “윗분들이 전해드리랍니다. 거래가 성립됐다고”라는 임팩트 강한 문구와 섬뜩한 눈빛을 드리운 모습으로, 반사회적 괴물 검사 주하민의 모습을 담아냈다. 말끔한 정장 차림과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서울지검 형사부 최연소 과장으로 자리 잡은 모범 검사다운 면모를 연출하고 있지만, 무표정한 얼굴에서 설핏 발산되는 소름 카리스마가 보는 이들을 오싹하게 만들고 있다.

이엘리아는 “그 사람 미래를 사줬어요, 몇 푼 안 하더라고”라는 문구로 대기업 대한그룹 고명딸이자 작은 왕국의 공주 백아현 역의 성격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한 눈에 돋보이는 청순 미모와 자태로 재벌가의 귀티를 자아내는 것과 달리, 서늘함이 묻어나는 표정이 인상적이다. 살아 숨 쉬는 천사 백아현의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위악으로 점철된 소녀의 모습을 연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작은 신의 아이들’은 오는 2월 24일 오후 10시 20분 첫 방송된다.

‘크로스’ 강렬한 복수의 시작, tvN표 新 장르물의 탄생

‘크로스’가 강렬한 첫 회로 새로운 메디컬 복수극의 서막을 열었다.

29일 밤 케이블TV tvN 월화드라마 ‘크로스’(극본 최민석 · 연출 신용휘)가 첫 방송됐다.

‘크로스’는 살의를 품고 의술을 행하는 천재 의사 강인규(고경표)와 그의 살인을 막으려는 휴머니즘 의사 고정훈(조재현)이 생사의 기로에서 펼치는 메디컬 복수극이다.

‘크로스’는 지난해 많은 호평을 받은 케이블TV OCN 드라마 ‘터널’의 신용휘 감독과 영화 ‘블라인드’로 대종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한 최민석 작가의 작품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장르물로 이름을 날린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크로스’는 첫 회부터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레지던트 4년 차 강인규가 돌연 병원을 떠나 신광교도소 의사에 지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인규가 교도소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김형범(허성태)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교도소에서 김형범을 마주한 강인규는 마음을 숨기고 그에게 접근했다. 강인규는 김형범의 몸상태를 진단한 뒤 약을 처방해 주고 “지금은 걸어 나가지만 다음엔 기어서, 그다음엔 누워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제발 죽여 달라고 할 거다. 내 처방이 서서히 네 몸을 망가뜨릴 테니까”라며 치밀한 복수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듯 ‘크로스’는 “전 다른 의사들과 다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된 게 아니다. 죽이려고 의사가 됐다”는 강인규의 대사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든 의사가 반대로 사람을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으로 메디컬 드라마에 접근했다.

또한 ‘크로스’는 핏빛이 난무하는 폭력적인 복수 대신 치밀하고 서늘한 지능적 복수를 선택하며 향후 전개에 대해 흥미를 자극했다. 복잡한 강인규라는 캐릭터를 감싸는 사연도 모두 개연성이 있어 극에 몰입을 도왔다. 고경표 역시 무거운 분위기의 강인규 역을 무난히 소화하며 제 몫을 해냈다.

여기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고지인 역을 맡은 전소민의 연기도 돋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부인의 갑질에 일침을 가하며 통쾌함을 선사했다. 첫 등장부터 캐릭터를 강렬하게 드러내며 무거운 극의 분위기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크로스’는 이날 시청률 3.9%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크로스’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신선한 소재들과 복수 스토리를 버무려 극을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음력 12월 15일)

▶쥐띠 형제간에 사소한 일로 언쟁이 있겠다. 지금은 아무리 바른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면 마음을 알게 될 테니 참는 것이 상책이다. 1, 7, 9월생 마음고생이 많지만 인내하라. 진실한 마음에 복이 온다.

▶소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탐내지 말라. 도리어 실속 없이 심신만 피곤해진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단점을 고치라. 1, 7, 9월생 애정은 삼각관계로 고심하거나 나이 차이로 애간장을 태우는 격. 주변을 정리하라.

▶호랑이띠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대 관계를 원활히 하라. 겸손한 자세가 요구된다. 금전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건강에도 신경을 쓰라.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결단코 물리치라. 3, 5, 9월생 언행 탓에 시비가 있을 듯하니 조심하라.

▶토끼띠 적은 투자로 소득이 많은 운이다.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하고, 자만심을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ㅂ, ㅊ, ㅇ 성씨 애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미련한 짓이다. 더욱 가까이 다가서라.

▶용띠 남들은 원앙 부부라고 부러워하겠지만, 만나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다툼이 너무 잦아지는구나.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임을 알라. 숨겨둔 사람이 있다면 청산해야 해를 면한다.

▶뱀띠 행동 없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정신으로 보호하고, 관심을 둬야 한다. 2, 7, 9월생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행동이다. 지금 생활을 만족해하며 발전시켜야 현명하다.

▶말띠 누구든 난관에 부닥치면 본능적으로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책임감으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 ㅁ, ㅂ, ㅊ 성씨 북, 서쪽이 길함.

▶양띠 자신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의 성의도 무시하고, 이득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동보다 협조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라. 1, 5, 7월생은 존경해주는 아량으로 덕을 베풀 때다. 익은 앵두를 먹는 격으로 모든 일이 순조로울 듯.

▶원숭이띠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좋은 기회도 찾아왔다. 그러나 조건을 따지다 보면 행운을 잡을 수 없다. 조금은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라. 3, 7, 9월생은 정신적으로 가족과 함께 안정하라.

▶닭띠 항상 근면 성실한 성품이며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 주위 사람에게 찬사를 받으나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자도 있다. 미혼자는 애정을 하나로만 만족한다. 삼각관계는 통하지 않는다. 1, 7, 9월생 자존심을 버리라.

▶개띠 세상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심하는 것은 누구든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ㅅ, ㅇ, ㅎ 성씨 반성하고 대화로 풀라. 원만히 해결되겠다.

▶돼지띠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칠 인내가 필요할 때다.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동, 북쪽을 조심하고 ㄱ, ㄴ, ㅁ 성씨는 애정에 마음 설레며 짝사랑 하는 격. 서, 북쪽이 길하다.